



辨理士와 Patent Attorney



陳 今 燮

〈在美辨理士·藥學博士〉

조물주 하나님께서 胎初에 人間을 만들때 良心이란 것을 주었기에 우리가 양심에 비추어사는 삶을 나그네와 같은 人生旅程의 里程碑(milestone)로 삼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불교에서는 불경이 그리고 철학자 칸트는 理性이 이 良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던 이 각박한 世上에 良心에 두손을 얹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그래도 내 人生이 후회없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추해볼 수 있기에 나는 늘 양심을 주신 조물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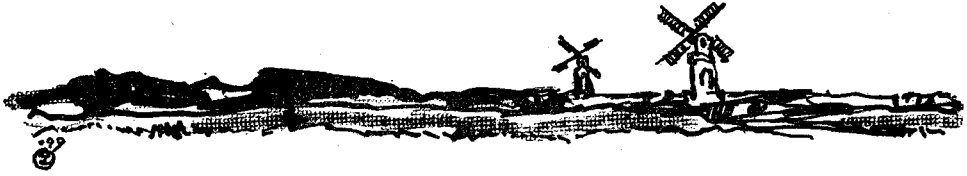
오래된 일이지만 15年間の 特許廳 勤務를 그만두고 辨理士 事務所를 차릴때 심각하게 이 良心과 싸운적이 있었다. 새 명함에 英文으로 辨理士를 併記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表記할까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일찌기 美國 특허청을 들락날락하여 이곳 辨理士 制度를 익히 아는 나로서는 쉽게 英文으로 Patent Attorney라고 병기할 수가 없었다. 변리사를 취득하는 資格으로 보아서는 Patent Agent요, 업무수행범위로 보아서는 Patent Attorney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자격증(licence)인것을 고려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Patent Attorney라고 사용하였지만.

왜 그럴까? 우선 미국의 변리사 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한자로 특허청에 기술직 심사관으로 5年이상 근무한자나 Patent Agent 자격시험에 합격한자는 Patent Agent(변리사)자격을 준다. 이 Patent Agent는 오직 특허청의 특허(특허, 식물특허, 의장)일만을 대리할 수 있고 특허청의 상표나 법원일은 할수 없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미국교육제도는 대학 4년동안 자연 또는 인문과학을 전공한 후에 법과대학(Law School) 3년을 다니게 되어있어 이 Law School을 나온 후에 Attorney(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따라서



Patent Agent 자격자가 Law School을 졸업하고 Attorney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 Patent Attorney가 되는 것이며, 이들은 특허청의 특허상표 및 법원일을 전부 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Patent Agent자격이 없거나 인문과학을 전공하고 Attorney시험에 합격한 자는 단지 Lawyer(변호사)로서 특허청의 특허는 代理할 수 없고 상표와 법원일을 대리할 수 있어 이 또한 Attorney(변리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辨理士를 英文으로 Patent Attorney, Attorney, Patent Agent중 어느것으로 表記할가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아마 이 美國式의 순수한 Patent Attorney가 한국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美國의 Patent Attorney는 기술과 법을 전공했기에 특허청의 특허, 상표, 법원일을 다 취급하고, Attorney는 법만을 전공했기에 특허청의 상표, 법원일을 그리고 Patent Agent는 기술을 전공했기에 특허청의 특허에만 종사할 수 있게 制度化한 그 合理性은 누가 부인하랴.

이런 美國시스템과 우리나라 변리사제도를 비교해 볼때 어쩐지 어색함을 느껴본다. 더구나 미국의 변리사들은 자기가 직접 作成하지 않은 서류에는 싸인을 하는 일이 없다. 특허 사무소의 Senior partner(主人)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가 知的所有權의 중요성이 高潮되어가고 변리사의 質的向上이 요청되는 이때 변리사제도를 研究해 볼 가치는 分明히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특허권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하는 公人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良心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워싱턴 Birch, Stewart, Kolasch & Birch 특허사무소에서)